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efficacy

우 회 정**
Woo, Hee Jung
이 숙***
Lee, Soo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efficacy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home environment. The home environment factors included mother's 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subjects were 491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using the SAS PC⁺ program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PC-LISREL VI.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global self-efficacy level, but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some subfactor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same causal model appears for both sex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efficacy. That is, socio-economic status of the home and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ed mother's attitudes for child rearing which had a direct impact on children's self-efficacy.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예언해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행동의 원인을 유기체 내에 두는 이론과 유기체 외의 환경적 요인에 두는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 두가지

관점에서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는 다소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Bandura, 1971; Bandura, 1977),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이러한 학문적 추세의 일환으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 내부의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은 기

* 본 논문은 1993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대, 사고와 신념, 동기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 등의 인지적(내적)요인과 환경적(외적)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된다고 제안하면서, 행동의 변화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 기대라는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가지 형태의 기대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는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와 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 기대(efficacy expectation)로 구분된다고 한다(Bandura, 1977; Maddux, Sherer & Rogers, 1982).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행동을 수행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얼마만큼 저항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 뿐 아니라 그들의 사고 유형과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Bandura, 1981). 이와같이 행동 변화의 강력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한 자기-효능감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실험법을 이용하여 보상의 유형 및 수반 관계(Bandura, 1977; Bandura, 1982; Deci, 1975; Schunk, 1984a)와 귀인 피드백(Andrew & Debus, 1978; Dweck, 1975; Nicholls, 1979; Schunk, 1984a), 목표 유형 또는 목표 설정 방법(Schunk, 1984a), 사회적 비교(Schunk, 1984a; Schunk, 1984b), 방

략 훈련(Schunk & Cox, 1986)등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실험법 이외에 지필검사(paper and pencil test)만으로도 자기-효능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함으로써(Gibaud-Wallston, 1977; Gibson & Dembo, 1984; Hillman, 1986; Perry, Perry & Paul Rasmussen, 1986; Sherer & Maddux, 1982; Wheeler & Ladd, 1982), 대규모의 표본을 사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문적 영역(Bandura, Adams & Beyer, 1977; Nicholls, 1979; Schunk, 1984a)과 사회적 영역(Perry et al., 1986; Wheeler & Ladd, 1982)에 한정되어 왔을 뿐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Hillman(1986)은 스포츠에 강한 자기-효능감을 지닌자가 학문적 영역에서도 반드시 강한 효능감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특수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도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Bandura, 1981; Lefcourt, 1976). 한편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이 행해진 반면, 자기-효능감 발달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험은 개인의 효능감 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며(Bandura, 1982), 인간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아동이 처한 환경이 자기-효능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생활환경은 크게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사회환경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환경 맥락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Ames & Ames, 1984; Gibson & Dembo, 1984). 대부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초점 학문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있으나 아동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환경인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효능감의 경험들은 가족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Bandura, 1982) 볼 수 있으며 부모는 어린이가 상당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인간은 주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고 인지하는데,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 기준, 즉 사회적 기대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아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또한 사회적 지위들이 사회적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아평가 차원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처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요인으로 반드시 가정환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

다.

가정환경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분류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을, 심리적 환경으로 가족내에서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리라 예측되어지며 실제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서도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남아와 여아의 경우를 따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Bandura, 1977; Parsons, Ruble, Hodges & Small, 1976). 따라서 가설적 연구 모형에 대해 남아와 여아를 각각 따로 검증해 보고, 각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가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 관련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 관련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

인 효능감 수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위 영역별로 세분하면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Bandura(1977)와 Parsons 등(1976)은 일반적으로 지적 활동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에 성차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덜 효능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양육자들이 여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차의 원인을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잘못된 문화적 모호화에 돌리고 있는 학자들(McArthur & Eisen, 1976; Weitzman et al., 1972)도 여아를 비성취적 역할로 보고 있다.

Dentler(1984)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열망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일관성 있게 낮은 효능감을 지닌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Wheeler와 Ladd(1982)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성차를 연구한 결과, 아동기 동안 남·녀아는 전반적인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매우 비슷하다는 Maccoby와 Jacklin(1974)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성차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입증했다.

2)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기-효능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Filsinger와 Anderson(1982)은 청소년 후기의 자존감과 사회 계층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사회적 계층은 성인에게는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나 아동에게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여 발달 단계상 어떤 위치에 놓여있

느냐에 따라 사회 계층의 영향력은 다르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아니며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청년기에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로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성인에게 있어서는 성취에 대한 지침으로 사회적 지위가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계층의 영향력은 의미있는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Smith(1968) 역시 아동에게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이 뚜렷하지 않으나 성인에게는 뚜렷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성인의 자기지각이 미래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아동의 자기-효능감

최초의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Bandura, 1982),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다른 환경자극의 중계자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어머니의 효능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들이 지닌 가치 체계는 부모-자녀간의 인간 관계 및 상호작용 패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동의 자기-효능감 역시 어머니의 가치 체계에 의해 영향 받으리라는 점이 시사된다.

운현선(1983)은 어머니의 자아개념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양육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raybill(1978)도 자존감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훈육을 하며 어머니 자신의 자존감도 낮게 지각한 반면,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가 수용적이며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어머니의 효능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Mussen 등(1974)은 부모의 자아개념과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는 깊은 관계가 있으며 또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자녀로 하여금 행복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들도 자존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들 수 있다. 결혼만족도란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높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결혼생활에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설광석(1986)은 자아개념과 결혼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을 8차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유추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기 평가차원인 '자인아(ego-cognized self)'가 아내의 결혼적응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자신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할수록 결혼 생활에 더욱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아개념은 결혼 적응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며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아지각이 제대로 될수록 결혼 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Hurlock, 1981; 신순옥, 1984), 이들 연구를 통해 볼 때 부모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자신의 결혼생활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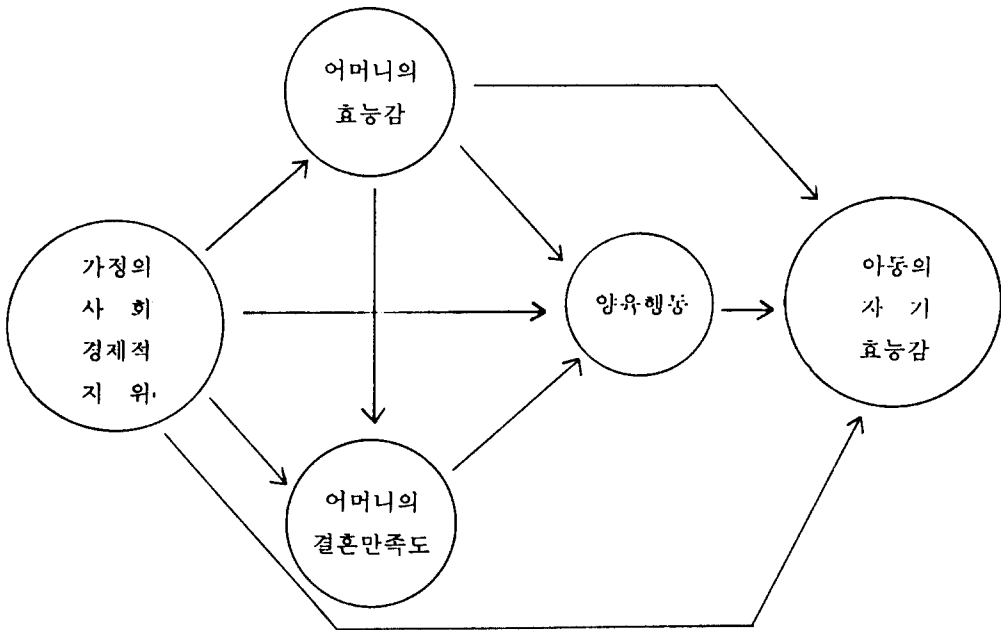
한편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태도에 반응해서 그들 나름의 발달을 도모해 나간다고 보는데, 이는 부모가 일차적인 사회화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며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Bandura, 1977). Coopersmith(1967)도 아동의 자존감은 개개인의 중요한 요인들 특히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많은 연구 보고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Fristod와 Karpowitz(1988), 이숙(1988) 등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Rowe(1981), 광용(1986)

등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대체로 일관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 유안진(1983)은 가정이 속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태도와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전보운(1989)의 연구에서도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지배적이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Bandura(1977)는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동의 자기-효능감 역시 부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 여겨지는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

러나 어머니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성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과모형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는 탐색해 보아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가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이 주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 모형의 구성

관련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그림 1)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의 효능감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어머니에 관련된 변인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설정을 위해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관련된 변인 중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은 외생변인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은 내생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 즉 어머니의 효능감에서는 일반적 효능감과 부모 역할 효능감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서는 애정적 부부관계, 권위적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그리고 양육행동에서는 은정적 양육행동과 거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 소재 4시 공립국민학교 5, 6학년 아동 554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용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불성실한 응답을 기재한 경우 및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491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2. 검사도구

1) 아동의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주로 학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아동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효능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국내외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79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효능감

어머니의 효능감은 일반적 효능감과 부모역할 효능감을 측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척도 중 일반적 효능감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였고, 부모역할 효능감은 Gilbert와 Harson(1983)이 제작한 '부모역할 책임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Scale)'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79(일반적 효능감)과 .85(부모역할 효능감)로 나타났다(전체 .86).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조사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이숙(1988)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 중 은정요인과 거부 권위주의적 요인에서 각각 12문항씩 선택하였는데, 본 검사에서는 이 두 요인에 속해있는 문항들 중 12개씩만 선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다시 산출한 결과 하위 요인별 신뢰도가 각각 .79(은정요인)과 .81(거부 권위주의

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85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Roach 등(1981)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의 네개 하위영역 중 선행 연구에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애정적 부부관계와 권위적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26개의 문항과 Hay와 Stinnett(1971)의 '중년기 생활 만족도 척도(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중 부모 자녀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5문항을 선택하여 애정적 부부관계, 권위적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등의 세개의 하위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이들의 신뢰도는 .92(애정적 부부관계) .73(권위적 부부관계) .70(부모 자녀관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91로 나타났다.

5) 가정환경조사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내에 아동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3. 자료처리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Cronbach's α 계수, Pearson's α 계수 등을 산출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C-LISREL VI(Joreskog & Sorbom, 1984)를 이용하여 공

변량 구조 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인지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은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인지적 요인은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인지적인 면에서 남아보다 효능감이 뒤떨어지리라는 선행연구(Bandura, 1977; Parsons et al., 1976)와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자아개념에 대해 보고한 Amatora(1945)의 연구결과(송인섭, 1990, 재인용)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된 신체적 요인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성 고정관념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회 정서적 요인은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Wheeler와 Ladd(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표 1〉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인지적 요인		사회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전 체	
여아 (n=243)	M	33.47		18.80		16.15		68.42	
	SD	4.24	t=3.58*	3.37	t=0.29	3.49	t=3.19*	8.39	t=0.37
남아 (n=248)	M	32.10	df=489	18.89	df=489	17.15	df=489	68.15	df=489
	SD	4.18		3.46		3.44		7.96	
전체 (n=491)	M	32.77		18.85		16.66		68.28	
	SD	4.26		3.41		3.50		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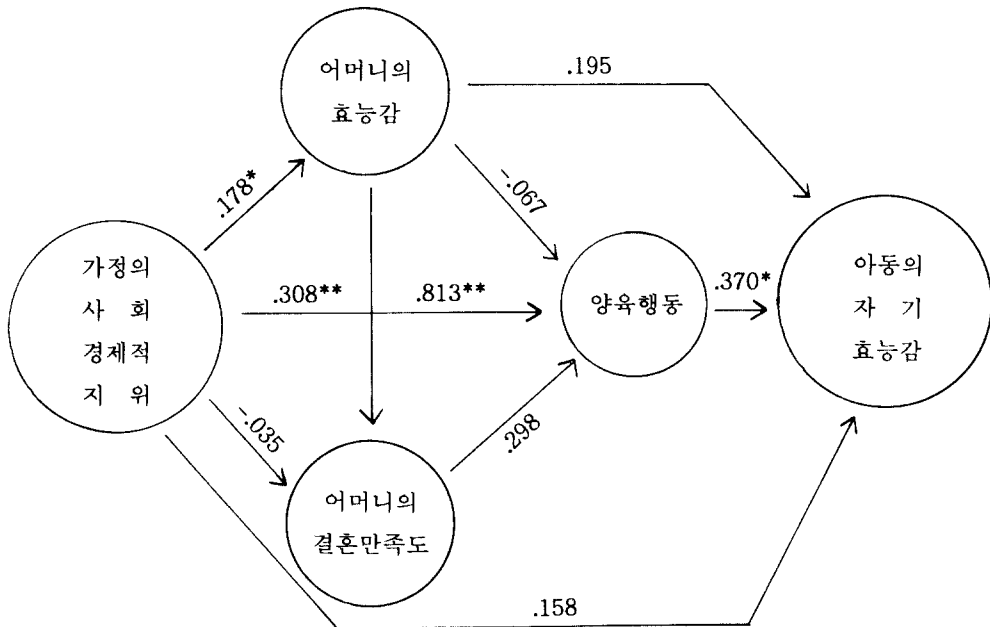
* p<.001

2. 남아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

1) 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11개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산출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 모형의 추정치에서 나타난 왜

곡은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Muthen & Kaplan, 1984). 또한 내생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적 모형이 경험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 분석 결과도 기초부합치가 .943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이상적으로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가설적 모형의 구조 행로(남아)

〈그림 2〉와 같이 가설적 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 분석 결과 유의한 행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어머니의 효능감($p < .05$), 사회 경제적 지위→어머니의 양육행동($p < .01$), 어머니의 효능감→결혼만족도($p < .01$), 양육행동→아동의 자기-효능감($p < .0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는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효능감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주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다시 아동의 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가설은 부정되었다. 어머니의 효능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도 부정되었다.

〈표 2〉 가설적 모형의 구조행로 계수(남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926	.813	5.456**
β_{31}	-.105	-.067	-.286
β_{41}	.145	.195	1.606
β_{32}	.412	.298	1.250
β_{43}	.174	.370	2.161*
γ_{11}	.096	.178	2.213*
γ_{21}	-.022	-.035	-.465
γ_{31}	.263	.308	4.182**
γ_{41}	.063	.158	1.482

* $p < .05$ ** $p < .01$

〈표 2〉에서 제시된 바대로 내생 변수의 구조 행로 계수간의 차이가 크고, 어머니의 효능감과 양육행동간에 정적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정이 부적관계로 나타난 것이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행로가 무의미하게 나타난 결과 등은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변인간에 상호 중복성(multi-collinearity)이 크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추측되며 LISREL을 이용하여 실제 어머니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표 3〉과 같이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이론 변인간의 중복 상관성의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판단하에 가설적 모형에 대한 확인적 탐색은 중지하고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

〈표 3〉 어머니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남아)

	어머니의 효능감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어머니의 효능감	1.000		
결혼만족도	.807	1.000	
양육행동	.228	.278	1.000

2) 대안모형의 탐색

① 대안모형의 구성

가설적 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간에 중복 상관성이 높음이 밝혀졌다. 이 두 변인간에 중복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라는 변인들은 상호 개념적인 구별은 가능하나 실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이론적 변수로 묶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대안 모형에서는 이 두 변인들을 하나의 변인, 즉 부모 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부모 자녀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로 구성되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안모형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양육행동이 다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리라 가정하였다.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대안모형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외생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내생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심리적 요인에 대한 측정변인들로는 부모역할 효능감과 애정적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만족도 변인으로 하였는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권위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 변인을 제외시킨 것으로 가설적 모형 검증과정에서 이 두변인은 내생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본 인과모형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결혼만족도의 측정변인 중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비중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권위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애정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② 대안모형의 구조행로 및 계수

대안모형의 내생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모형의 부합도 분석 결과 전반적인 지수가 이상적으로 부합됨을 보였다. 대안모형의 구조행로 계수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대안모형의 구조행로계수(남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315	.250	2.820**
β_{31}	.115	.185	1.472
β_{32}	.178	.360	2.104*
γ_{11}	.093	.138	1.789
γ_{21}	.251	.296	4.148**
γ_{31}	.075	.178	1.648

* $p < .05$ ** $p < .01$

위의 대안모형의 행로 구조를 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리라는 가정(β_{21})은 수용되었으나($p < .01$),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이라는 가정(β_{31})은 부정되었다.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β_{32})으로 나타났다($p < .05$).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양육행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γ_{21})으로 나타났을 뿐($p < .01$)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나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γ_{11} , γ_{31})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볼 때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과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과 정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어머니일수록 양육행동이 바

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에 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양육행동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 연구들(신순옥, 1984; 전보윤, 1989; Coopersmith, 1967; Hurlock, 1981)과 일치하는 것이다.

③ 대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

〈표 5〉 대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부합도(남아)

전반적지수	Chi-square	df	유의도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간 량	결정계수
I (β 31고정)	41.17	23	.011	.965	.932	.050	.350
II (γ 11고정)	44.31	24	.007	.963	.930	.058	.344
III (γ 31고정)	46.95	25	.005	.961	.930	.059	.334

〈표 6〉에 나타난 바대로 수정모형의 구조 행로 계수를 보면 수정모형은 이론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보여주는 바 남아의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심리적요인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적 관계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스럽고 부모역할에 대해 효능감이 클수록, 가정

대안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구조 행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는 변인을 중심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형의 수정 방법 중 모형의 부합도가 좋을 때 부합도를 별로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형을 간명하게 하는 방법, 즉 고정지수가 충분히 작은(t-값의 절대치가 2보다 작은)자유 특정수의 값을 0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수정은 한번에 한가지씩만 해야한다는 원칙에 의해(이순목, 1990) 몇 단계를 거쳐 모형을 수정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대로 수정에 따른 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는 대안모형의 부합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며 또 이러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대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구조 행로 계수(남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 21	.353	.263	3.178*
β 32	.270	.369	3.804*
γ 21	.269	.287	4.647*

* $p < .01$

4. 여아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

1) 가설적 모형의 분석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 및 요인 부하량, 부합도 분석 결과, 여아의 경우도 왜도, 첨도는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생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부합치가 .915로 가설적 모형은 이상적으로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설적 모형의 구조행로계수(여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755	.731	4.451**
β_{31}	.496	.472	2.042*
β_{41}	-.243	-.249	-1.763
β_{32}	-.021	-.035	-.088
β_{43}	.686	.614	3.770**
γ_{11}	.008	.003	.095
γ_{21}	-.024	-.015	-.323
γ_{31}	.238	.163	2.961**
γ_{41}	-.068	-.042	-.764

* $p < .05$ ** $p < .01$

<표 7>에 제시된 바대로 가설적 모형의 구조행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행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어머니의 양육행동($p < .01$), 어머니의 효능감→어머니의 결혼만족도($p < .01$), 어머니의 효능감→어머니의 양육행동($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아동의 자기-효능감($p < .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가설적 모형 설정시 기대되었

던 어머니의 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효능감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변인일 것이라는 기대는 부정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인 역시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간에 정적관계가 있으리라 기대했던 가정이 부정되었고 오히려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변인간에 중복 상관성이 있으며, 이 두 변인간에 결혼만족도 변인이 억압변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예측되어졌다. 따라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대안모형의 탐색

① 대안모형의 구성

여아의 경우도 가설적 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간에 중복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남아와 같은 방법으로 대안모형을 구성하였다.

② 대안모형의 구조 행로 계수

대안모형의 구조 행로 계수를 보면(<표 8>),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양육행동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정은 수용되었고($p < .01$), 심리적 요인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일 것이라는 가정은 부정되었다. 한편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1$). 가정의 물리적 환경인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양육 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리라 가정했으나,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양육행동 간에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뿐 ($p < .01$),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신순옥, 1984; Coopersmith, 1967; Hurlock, 1981)과 같은 것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당한 정도로 여아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형성에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8〉 대안모형의 구조행로계수(여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437	.416	3.920*
β_{31}	-.176	-.198	-1.606
β_{32}	.559	.658	3.829*
γ_{11}	-.034	-.050	-.649
γ_{21}	.185	.260	3.259*
γ_{31}	-.044	-.072	-.812

* $p < .01$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한 어머니일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대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

대안모형의 구조 행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행로만을 선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남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한가

지씩 수정하여 수정모형에 따른 전반적인 부합도를 산출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수정에 따른 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는 대안모형의 부합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안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구조행로 계수(여아)

구조행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고정지수(t-값)
β_{21}	.406	.368	3.647*
β_{32}	.428	.534	4.125*
γ_{21}	.177	.237	3.113*

* $p < .01$

이론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보여주는 수정모형에서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의 효능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들을 상정하여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학교 5, 6학년 남, 녀 아동 491명과 그들의 어머니가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가설적 모형에 대하여 남아와 여아의 경우가 각각 따로 분석되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동안 남아와 여아의 전반적인 자기 확신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Maccoby와 Jacklin(197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별로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p < .001$), 사회 정서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지적 요인은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 활동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덜 효능적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Bandura(1977)와 Parsons 등 (1976)은 양육자들이 영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때문에 여아는 지적활동에서 자신의 효능감을 낮게 지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오늘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기대수준도 변화했다고 볼 때, 지적 능력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뛰어나며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리라는 예측은 타당치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Amatora(1945)는 국민학교 아동들이 남아들은 여아들과 교사들이 그들에게 내린 평가와 비교해서 자신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

었고 여아들은 지능, 사회성, 재치와 관련되었을 때 그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송인섭, 1990, 재인용) 이는 여아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남아보다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보고라 할 수 있다.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성 고정관념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사회 정서적 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Wheeler와 Ladd(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학문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교환경 내에서 교사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많이 있으나 아동의 제 발달에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효능감은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형성된다고 볼 때(Bandura, 1982),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을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환경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변인을 택하고, 심리적 환경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한 변인들, 즉 어머니의 효능감 및 결혼만족도 그리고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이 상호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남, 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했던 가설적 인과관계의 구조는 남아와 여아 각각의 경우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되는 편이었으나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

혼만족도간에 중복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변인간에 억압효과(suppressor effect)가 있어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적인 인과모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라는 두 이론변인은 개념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때, 또다른 하나의 변인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심리적인 측면과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설적 인과모형에서 설정하였던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변인은 심리적 측면으로, 양육행동은 행동적 측면으로 속한다고 볼때 중복 상관성을 보인 어머니의 효능감과 결혼만족도 변인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되어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양육행동 그리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이를 대안모형으로 지칭하였다. 대안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과 애정적 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만족도만으로 구성 하였는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권위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 변인이 제외된 것은 가설적 모형검증 과정에서 이 두 변인은 내생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본 인과모형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인과관계를 탐

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결혼만족도의 측정변인중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비중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권위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애정적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안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매우 높은 기초 부합치를 보임으로써 대안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됨을 보였다. 이는 대안모형이 가정환경(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라 인과모형에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탐색 결과, 남아와 여아의 경우가 공히 같은 행로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성에 따른 차이, 즉 성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나 양육 행동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녀 아동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행로구조를 보임으로써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행로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각 변인들의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정도에 있어서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행로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전체효과 역시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 변인들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어머니 만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써,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하거나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해 나간다고 한 Bandura(1977)의 주장에 비추어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에서 여아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아버지 변인을 포함한 인과모형 탐색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본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사 문항에 대한 이해 능력 및 응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 사용한 검사도구의 문항들 역시 이 연령대 아동들의 관심 및 능력에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기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에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에 적합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검사도구가 거의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위해 검사도구를 직접 제작, 실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추후연구를 통해 계속 연구되고 검사도구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셋째,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들(자아개념, 자아존중, 지각된 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해야 했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 공헌도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을 가정의 사회 경제적 변인과 어

머니 관련 변인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만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가정환경 변인, 특히 아버지나 형제, 자매 관계 변인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동 자신에 관련된 많은 변인들(지능, 학업성적, 성격 등)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환경 뿐 아니라 사회환경, 학교환경까지도 모두 포함시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 용 (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설광석 (1986). 자아개념과 결혼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송인섭 (1986). 인간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신순옥 (1984).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부간 결혼적응과 아동의 부적응 정서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현선 (1983). 모의 자아개념 및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안진 (1983). 육아론, 서울:문음사.
-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묵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성원사.
- 전보윤 (1989).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 양육 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s, C., & Ames, R. (1984). Systems of student and teacher motivation; Toward a qualitative defini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35-556.
- Andrews, G. R., & Debus, R. L. (1978). Persistence and the casual perception of failure: Modifying cognitive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154-166.
- Bandura, A. (1971). Psychological modeling: Conflicting Theories. Chicago: Aldine-Atherton.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2-13, 17-22.
- Bandura, A. (1981). Self-referent thought: A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fficacy In J. H. Flavell & L. 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Adams, N. E., & Beyer, J. (1977). Cognitive processes mediating behavioral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5-13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entler, D. J. (1984). Self-efficacy as related to career aspirations based on the educational quality assessment inventory.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74-685.
- Filsinger, E. E., & Anderson, C. C. (1982). Social class and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Dissonate context or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80-384.
- Fristod, M. A., & Karpowitz,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Gibaud-Wallston, J. A. (1977). Self-esteem and situational stress: Factors related to sense of competence in new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379. (University Micro films No. DDK78-09936).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 efficacy: A constructive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 Gilbert, L. A., & Harson, G. R. (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203-212.
- Graybill, D. (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63, 669-674.
- Hay, M.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middle age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669-674.
- Hillman, S. J. (1986). Measuring self-efficacy: preliminar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Hurlock, E. B. (1981). Child development. 6th ed. McGraw-Hill co.
- Joreskog, K. G., & Sorbom, D. (1984). LISREL VI user's guide.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 Lefcourt, H. M. (1976). Locus on control: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 J.: Erlbaum.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ddux, J., Sherer, M., & Rogers, R. (1982). Self-efficacy expectancy and outcome expectan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07-211.
- McArthur, L. Z. & Eisen, S. V. (1976). Achievement of male and female story-book character as determinants of achievement behavior by boys and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67-473.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uthen, B., & Kaplan, D. (1984).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Nicholls, J. G. (1979). Development of perception of own attainment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in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94-99.
- Parsons, J. E., Ruble, D. N., Hodges, K. L. & Small, A. W. (1976). Cognitive developmental factors in emerging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related expectancie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47-62.
- Perry, D. G., Perry, L. C., & Paul Rasmussen, (1986). Cognitive social learnign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we, D. C. (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Deveiopmental Psychology, 17, 203-208.
- Schunk, D. H. (1984a).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chunk, D. H. (1984b). Self-efficacy and classroom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Schunk, D. H., & Cox, P. D. (1986). Strategy train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with learning disabled stud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201-209.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mith, M. B. (1968). Competence and socialization. In J. C. Clausen(Ed.).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Weitzman, L. J. Eifler, D., Hokada, E., & Ross, C. (1972). Sex role socialization in picture books for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1125-1150.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